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엔비디아와 세일즈포스의 콜라보..나스닥 1%대 강세

- 미국증시 기술주 중심 상승: 나스닥 +1.57%, 나스닥100 +1.43%
- 엔비디아-세일즈포스 실적 효과, 반도체-S/W 강세
- 연준 의장 잭슨홀 연설 대기

Summary

미국증시 기술주 중심 상승

현지시각 8월 27일 목요일 미국증시는 전일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와 세일즈포스가 급등하며 일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이들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 마감. 국제유가와 국제금리가 상승하고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았으며 IT를 제외한 전업종군이 약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나스닥 지수는 1% 이상 비교적 강하게 상승.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20% 상승한 53,569.44에 마감했고 S&P500 지수는 0.72% 상승한 7,730.99에 거래를 마칩. 나스닥 지수는 1.57% 상승한 26,541.35에 마감했고 나스닥100 지수도 1.43% 상승 마감.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은 0.35% 상승했고 변동성 지수 VIX는 4.54% 하락, 14.52에 마감.

(다우 +0.20%/ S&P500 +0.72%/ 나스닥 +1.57%/ 러셀2000 +0.35%)

엔비디아와 세일즈포스의 어색한 동반 강세

이날 시장 흐름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그간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왔던 엔비디아를 위시한 AI 인프라 투자 확대 관련주와 세일즈포스를 위시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한 방향으로 움직이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는 점.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인프라 투자 확대 내러티브 안에서의 수혜 기업들이 힘을 받을수록 고도화되는 AI 에이전트는 결국 기업용 소프트웨어의 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로 그간 이들 종목군은 상반된 움직임을 보여왔음. 다만 세일즈포스가 전일 실적 발표에서 기대 이상의 실적과 가이드언스를 공개했고 크라우드스트라이크와 옥타 등의 사이버 보안 기업들 역시 AI 모멘텀 안에서 보다 강화되는 사이버 보안 수요를 반영해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공개해 호실적 효과로 급등한 엔비디아와 함께 급등. 세일즈포스의 마크 베니오프 CEO는 AI가 주도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붕괴에 대한 우려, 이른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종말론'에 대해 '넌센스'라며 최고의 인공지능과 최고의 고객관계 관리 시스템을 결합한 엔트로픽과의 획기적 협업이 4년래 가장 강력한 신규 주문 성장과 사상 최저 수준의 고객 이탈률로 나타났다고 설명. 강력한 AI 인프라 투자 모멘텀이 지속되는 가운데 그 안에서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기업들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선별적으로 제고될 여지가 있음.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잭슨홀 데뷔 대기

전일 발표된 PCE 가격지수가 여전히 끈적한 고물가 상황을 확인시켰으며 이날 클리블랜드 연은의 베스 해맥 총재는 미 연준이 내년까지도 물가 상승 압력을 통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면 높은 인플레이 억제를 위해선 결국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 이날 국제유가는 재차 반등했고 국채금리 역시 소폭 상승해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반영. 이런 가운데 현지시각 28일 오전 8시(한국 시각 28일 오후 11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은 연준 의장 취임 이후 첫 번째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있음. 시장은 취임 이후 연준과 시장의 소통을 극도로 제한해온 케빈 워시 의장이 최근 급등 이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 국채 금리, 이외 주요국의 장기 금리 상승 추세, 그리고 높은 물가 수준과 비교적 안정된 노동 시장 환경 속에서의 연준의 정책 방향성 등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주목.

주간 고용지표는 건조

미국에서 한 주간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건수는 20만 3,000건으로 시장 예상치 20만 8,000건을 하회. 2주 연속으로 전주 대비 청구자수가 감소. 연속 청구자 수도 전주에 비해 1만 8,000건 줄어 노동 시장 여건은 대체로 안정적임을 시사. 이는 연준이 고용과 물가라는 이중 책무 중 물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라는 의미로 시장 관심 역시 인플레이 관련 지표와 연준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쏠릴 수 있음.

한편 7월 미국의 상품무역적자는 1,188억 달러를 기록해 예상 1,005억 달러를 크게 웃돌. 수출이 2.9% 감소한 반면 수입이 3.7% 증가한 영향으로 주로 컴퓨터와 반도체 등의 자본재 수입의 증가가 무역적자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이런 가운데 이날 미 경제 매체 폴리티코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산 반도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특징종목

S&P500 구성 섹터 중에서는 IT(+3.40%) 섹터를 제외한 전 업종이 하락. 필수소비재(-1.50%)와 헬스케어(-1.10%) 업종 낙폭이 컸고 재량 소비재(-1.02%)와 부동산(-0.92%) 섹터도 1% 내외 하락. IT 섹터는 세일즈포스와 클라우드스트라이크, 엔비디아 등의 급등세에 힘입어 상승.

엔비디아 실적 효과

엔비디아(+8.74%)가 전일 마감 이후 발표한 실적에서 여전히 강력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함에 따라 AI 인프라 투자 확대 내러티브가 꺾이지 않았다는 낙관적 시각이 확대, 일부 반도체를 비롯한 관련주 투자심리가 대체로 개선. 브로드컴(+4.49%), 인텔(+4.36%), 텍사스인스트루먼트(+1.82%),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2.86%).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레이몬드 제임스가 연 매출 1조 달러 가능성을 언급하며 목표주가를 기존 352달러에서 515달러로

46% 상향하는 등 호평이 이어졌고 주가 역시 급등해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2.33%) 상승을 견인. 다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0.32%), 시게이트 테크놀로지(+0.10%), 샌디스크(-0.96%), 웨스턴 디지털(-1.47%) 등의 메모리/스토리지 관련주는 상대적으로 부진. 물론 마감을 앞두고 장 중 저점에서 낙폭을 축소하거나 소폭 상승 반전하는 등 흐름 자체는 긍정적이었으며 SK하이닉스 ADR(+2.27%)은 상승. 이날 미국 내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업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입산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한편 데이터 인프라용 칩 제조사 마벨 테크놀로지(-1.50%)는 장 마감 이후 전분기 실적을 공개. 전분기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37% 증가해 예상을 웃돌았고 총 마진을 역시 58.9%로 시장 예상을 소폭 상회. 2027년과 2028년 회계연도의 매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며 AI 관련 수주 실적이 매우 견조하다고 밝히기도. 다만 주가가 올들어 170%가량 상승한 가운데 예상 범위를 크게 뛰어넘지 못한 실적은 실망 매물로 이어지기도. 실적 발표 직후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는 혼조, 다만 하락권에 머무는 시간이 좀 더 길었음.

세일즈포스 실적 효과

전일 세일즈포스(+22.58%)가 강력한 실적과 가이던스를 공개한 가운데 기업용 소프트웨어 주 전반이 강세. 세일즈포스는 첨단 AI 모델이 소프트웨어 업계의 기존 강자들을 위협할 것이라는 이른바 ‘SaaSocalypse’ 담론으로 그간 기업용 소프트웨어 산업이 시장에서 불안한 시선을 감당해왔지만 이제는 그런 이야기를 멈춰야 할 때라고 주장.

스노우플레이크(+4.36%), 서비스나우(+10.04%), 어도비(+5.73%), 오라클(+2.06%), SAP(+4.48%), 인튜이트(+0.61%), 워크데이(+1.48%), 팔란티어 테크(+4.75%), 몽고 DB(+8.49%), 데이터 도그(+6.70%).

역시 전일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사이버보안주 클라우드스트라이크(+20.50%)와 옥타(+28.63%)가 기대 이상의 전분기 실적과 가이던스 상향 등에 힘입어 급등, AI 에이전트 사용량 급증에 따른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이 재차 강조되며 관련주 전반이 동반 상승. 팰로앨토 네트워크스(+12.83%), 포티넷(+9.67%), 지스케일러(+9.98%), 클라우드플레어(+8.19%), 센티넬원(+10.73%).

센티넬원(+10.73%)은 정규장 마감 이후 전분기 실적을 발표. 전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기대 이상이었고 현재 진행 분기와 연간 매출 전망도 시장 기대 이상으로 제시. 다만 조정 EPS 전망치가 현재 진행 분기와 연간 전망 모두에서 시장 예상을 하회. 시간 외 거래에서 주가는 5% 내외 하락 전환.

소매유통주 실적 호조에도 약세

미국 할인 유통업체 달러트리(-3.92%)가 전분기 실적이 기대를 웃돌았음에도 현재 진행 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실망과 향후 수익성 둔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약세. 전자제품 유통업체 베스트바이(-4.44%) 역시 시장 예상을 웃돈 실적과 연간 가이던스 상향에도 수익성 개선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에 최근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약세.

로스 스토어(-2.71%)도 실적 발표 후 약세. 전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 대비 강했고 현재 분기와 연간 실적 가이드런스도 예상 대비 우호적으로 발표. 전분기 동일점포 매출은 10% 증가해 경쟁사 TJX(-1.91%)의 4%와 벌링턴 스토어스(-7.64%)의 2%를 크게 앞섬. 관세 환급 효과를 제외한 매출 총이익률도 시장 전망을 상회. 다만 지난달 초에서 이달 초까지 20% 이상 상승한 주가는 좋은 실적에도 매출 출회하며 약세. 벌링턴 스토어스는 전분기 총매출과 동일점포 매출이 모두 시장 예상을 하회했으며 향후 실적 가이드런스도 시장 예상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제시.

할인 유통업체 달러 제너럴(+2.53%)은 연간 이익 전망을 상향하고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힌 가운데 강세.

이외 특징주

최근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시장이 8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 비트코인 가격이 8만 달러 안착을 목전에 두고 숨고르기를 하고 있어 자금 유입 속도는 다소 둔화했지만 유입세 자체는 멈추지 않은 상황.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순유입이 이뤄진 8거래일간 시장으로 유입된 자금 규모는 약 28억 달러에 달함.

코인베이스 글로벌(+4.92%), 서클 인터넷 그룹(+4.82%), 스트래티지(+11.54%), 마라 홀딩스(+5.79%), 라이엇 플랫폼스(+1.31%), 로빈훗 마케츠(+1.12%) 등 암호화폐 관련주 주가 흐름도 긍정적.

네오 클라우드 관련주로 묶이지만 비트코인 채굴 사업 비중이 적지 않은 IREN(+2.40%)은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 비트코인 채굴 장비를 폐기하고 채굴 현장을 AI 클라우드 성장 지원을 위한 공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급증한 영향으로 전분기 손실이 예상을 크게 상회. AI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이 두 배 가량 성장했지만 비트코인 채굴 매출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영향으로 전분기 매출은 직전 분기 대비 감소, 시장 전망을 하회. 이에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하락 중이나 2% 내외로 낙폭은 제한적.

최근 암 백신 임상 성공 소식 이후 급등했던 모더나(-4.60%)는 이날 적격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총 20억 달러 규모의 전환 우선 사채를 사모 방식으로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잠재적 주식가치 희석 우려가 불거지며 하락.

전일 실적 발표 후 급등했던 애버크롬비 앤드 피치(-1.35%)에 대해 씨티는 목표가를 기존 135달러에서 156달러로 상향. 다만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하향.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채금리 소폭 상승

미 국채금리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잭슨홀 심포지엄에서의 연설을 하루 앞둔 경계감 속에 국제유가 상승을 재료 삼아 소폭 상승. 이번주 2년물과 5년물 입찰에 이어 이날은 7년물 국채 입찰이 진행됨. 수요가 양호한 가운데 발행 수익률은 지난달 입찰 대비 3.9bp 상

승해 2024년 12월 이후 최고를 기록했지만 발행 전 거래 수익률과 일치해 시장 예상에는 부합.

2년물 국채금리는 2.3bp 상승한 4.2320%를 기록했고 10년물 국채금리는 3.0bp 상승한 4.6762%를 기록. 30년물 국채금리는 2.6bp 상승한 5.1931%를 기록.

시카고 상품 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오는 9월 금리 인상이 이뤄질 가능성을 전장 대비 소폭 낮춘 34% 내외 수준으로 반영. 10월까지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50% 초반대로 반영.

국제유가 4거래일만에 반등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양측이 의미 있는 협상을 진행하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발언들을 쏟아내자 4거래일만에 반등.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지난 6월 체결했던 종전 양해각서로 복귀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뜻을 중재국들에 반복적으로 전달했다고 보도.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오전 중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란과 현재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힘. 이란에서는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인 모흐센 레자이가 중재국 카타르의 외무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이 먼저 이란의 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해야 이란도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에 나설 것이라고 밝힘.

이에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1.58% 상승한 배럴당 83.53달러를 기록했고, 브렌트유 10월물도 1.97% 상승한 배럴당 89.70달러를 기록.

국제 금값도 반등. 다만 잭슨홀에서의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연설을 앞두고 있어 등락 폭은 제한적.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코멕스(CO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은 0.23% 상승, 트로이온스당 4,664달러선을 기록. 다만 은값은 2% 이상 강하게 상승, 온스당 70달러대를 회복.

달러 가치 보합

미국 달러화 가치는 특별한 경제 지표 발표 등이 부재한 가운데 케빈 워시 의장의 잭슨홀 연설 등을 앞두고 보합세.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0.02% 하락한 99.141을 기록.

전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 거래에서 3.90원 하락한 1,380.90원에 마감해 11개월만에 최저를 기록한 달러-원 환율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0.25)를 감안시 서울 환시 주간장 증가 대비 1.05원 상승한 1,381.70원에 최종 호가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